

# KPPO News

Korean Parents Partnership Organization

Email : bcakppo@gmail.com

## KPPO 소식

### ☘ 정기모임

2월 3일 (수) 7 PM, 학교 2층 카페테리아에서 정기모임을 가졌습니다. BCA 화학과 김덕양 박사를 초대하여 "Beyond BCA" 라는 제목으로 세미나를 진행하였습니다. (세미나요약:3 페이지참고)

### ☘ 하반기 정기모임 일정안내

월/일	주제	시간	장소
4월 5일	정정숙 박사 세미나	11:30 AM	풍림식당
6월 8일	KPPO 총회	7 PM	BCA cafeteria

### ☘ 학년 모임 활동

#### 9 학년 모임 (대표 Sandy Kim)

- 1월 19일 화요일 북창동 순두부에서 모였습니다. 특별히 Michelle Lee (뿌리재단홍보부집행위원) 모시고 모국 방문 프로그램을 소개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추운 날씨 속에서도 20여 명의 어머니들이 참석하셔서 순두부를 먹으며 추위를 날려버리는 즐거운 대화와 유익한 정보를 나누었습니다.
- 2월 19일 금요일 11시 30분 Maggiano's 에서 8명의 어머니들이 모여 원탁 테이블에서 오붓하게 이탈리아 런치를 나누었습니다.
- 3월 15일 화요일 10시 30분 베리타스 학원에서 10학년 부모님들과 함께 새로이 바뀐 SAT에 대해 알아보고 시험 준비 등에 관한 정보를 듣는 유익한 시간을 가졌습니다

9학년, 10학년 합동으로 약 35여 명의 어머니들이 참석 하였고, 세미나 후에는 이화원에서 함께 점심을 먹었습니다.

- 4월 19일 화요일 11시 30분 Haven in Edgewater에서 모임을 가질 예정입니다.

#### 10 학년 모임 (대표 김윤진)

- 1월 9일 북창동 순부두 15명이 모여 점심을 먹으며 서로의 고충과 정보를 나누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 2월에는 모임이 없었습니다.
- 3월 15일 New SAT 설명회를 9학년 어머니들과 함께 베리타스 학원에서 가졌습니다. 13명이 참석한 가운데, 유익한 정보를 얻는 시간이었습니다.
- 4월 모임은 추후 논의 예정입니다.

#### 11 학년 모임 (대표 천혜숙)

- 11학년은 모임을 화요일에서 월요일로 옮겨매월 3째주에 가지고 있습니다.
- 1월 모임은 눈 때문에 취소되었습니다.
- 2월 22일 월요일 Paramus 소재 Kiku 식당에서 12명이 모여 식사와 커피로 교제를 나누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 3월 21일 월요일 풍림에서 미국 대학 진학 전반에 관한 세미나로 Eunice Oh 강사를 모시고 평소보다 많은 19명이 참여한 가운데 정기모임을 가졌습니다. 미국 대학 진학에 대한 오랜 경험을 바탕으로 실제적인 조언을 듣는 귀한 시간이었습니다.
- 4월 모임은 추후 논의 예정입니다.

## 12 학년 모임 (대표 김정화)

- 마지막 학년을 보내며 꾸준히 모임을 잘 하고 있습니다.
- 1월 17일 화요일 Maggiano Little Italy 식당에서 가졌습니다.
- 2월 17일 수요일 Edgewater에 있는 Haven에서 점심을 먹었습니다.
- 3월은 사정상 모이지 못했습니다.
- 4월은 예정대로 셋째 주 화요일인 4월 19일 담소에서 가질 예정입니다. 많은 참석 부탁드립니다.

## 학교행사 및 PPO소식

### 1월



26일 열린 Annual Guidance Appreciation Luncheon 에 KPPO 에서 과일과 케익 등으로 가이드스 선생님들의 수고에 고마움을 표시 하였습니다.

### 2월

26일, 27일 양일간, 학생들의 Winter Musical 'Evita' 공연이 강당에서 있었습니다.

### 3월

- Chocolate Competition: 24일
- Sophfrosh Semiformal: 24일 7 – 10 PM  
Powerhouse, Paramus
- Senior Fashion Show: 31일 6:30 – 10 PM  
The Florentine Garden  
River Vale

### 4월

- Cabaret:



20일(수) 7 PM  
강당에서 열릴 예정이며,  
입장료는 \$15입니다.

- College Fair: 2016 대학 박람회 21일(목)  
6:30-8:30 PM 에 개최됩니다. 매년 많은 학생들과 학부모들이 참석하여 각 대학의 입학 관계자들과 만날 수 있는 시간입니다.

### 5월

- Junior Prom: 13일(금) 6 PM
- 제 23회 Annual Picnic: 21일(토) 12 – 4 PM  
신입생 BCA Class 2020를 맞이하는 첫 축제입니다. 매년 한국학부모회에서 음료수 부스를 담당해 왔으며, 한국 학부모회 테이블을 마련하여 신입생과 가족들을 환영하고 KPPO 활동을 알립니다.
- PPO Meeting: 9일(월) 7 PM

### 6월

- Senior Prom: 9일(목)
- BCA Field Day: 17일(금)
- Graduation Day: 23일(목)



## 알아두시면 편리해요

Main Office: ☎ 201-343-6000  
결석시 ext.2226  
Nurse ext.2254

BCA: <http://bcts.bergen.org/index.php/bergen-county-academies>

BCA PPO: <http://www.academyppo.com/>

네비앙스: [BCA Homepage 상단 Parent Tab Click](#)

Power School: [BCA Homepage 상단 Parent Tab Click](#)

**김덕양 박사 세미나**  
**"Looking beyond BCA"**

지난 2월 3일 화학과 교사로 재직중이신 김덕양 박사를 모시고 정기모임을 가졌습니다. 한국인으로서 학교에서 가르치며 한인 학생들을 관찰하고 소통하면서 느낀 점과 당부의 말을 한국인의 관점에서 학부모와 학생들에게 전달해 주셨습니다.

참고로, 김덕양 박사는 서울대 무기재료 공학과 학사, 석사 마친 후, Stevens 공대에서 박사과 Post Doc을, Bell Lab 등 관련 분야에 근무하신 경력이 있습니다.

**☞ 대학 입학 관련 최근 전개상황**

- NY Times 컬럼니스트이자 인기작가인 Frank Bruni의 "Where You Go Is Not Who You'll Be"의 기사를 소개하였습니다.

[내용] 아이비리그 졸업자만이 이 사회의 중요한 지위를 차지하거나 학계 또는 과학적 업적을 독점하지는 않는다고 하며, 통계와 설문조사 및 취재를 통해 분석한 결과, 상당히 다양한 부류의 대학들이 (대규모 공립대부터 아주 작은 사립 학교에 이르기까지) 학생들의 미래에 이상적인 도약판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상세내용링크] 조금 더 내용을 알고자 하시는 분은 [여기를 Click 하십시오.](#)

- Making Caring Common Project(MCC): 하바드 교육대학원은 기존의 대학 입학전형 과정에 큰 도전이 되는 이 프로젝트 보고서를 지난 1월에 발표하였습니다. 자녀들이 대학 입학원서를 작성하면서 몇 개의 SAT II를 보았고 점수가 얼마였으며, AP 과목은 몇개를 들었고, 각각의 점수는 얼마였고, 각종 과외 활동에서 받은 상들은 무엇이 있는지 기록해야 할 부분에서 쓸 것이 마땅치 않아 주저하는 것을 옆에서 지켜보신 경험들이 있으실 것입니다.

이 프로젝트의 목적은, 이러한 보편화되고 획일적인 대학 입학전형을 보다 인간적이고 덜 'Superman'적으로 탈바꿈하고자 하는 데 있습니다. 상세한 정보를 원하시는 분은 [여기를 Click 하십시오.](#)

- 뉴저지 West Windsor-Plainsboro Regional School District, Superintendent [Dr. Arderhold's Letter to Parents:](#) 프린스턴에서 10분거리에 위치하고 있는 이 타운의 교육부는 2014년 학생들의 건강관련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120명이 정신건강 평가를 받아야한다는 결과와 40명이 입원 해야 한다는 통계를 얻었습니다. 이를 위해 전 학교 당국은 학생들의 지나친 학업 스트레스를 이완하고자 'Whole Child'의 이상을 실천하고자 학교 프로그램 개혁을 제안 했습니다.

이와 관련 [NY Times 기사\(12.25.2015\)](#)를 읽어보십시오.

**☞ 6가지 제안**

- 기술(Skills) 습득을 위한 새로운 기회들을 탐색해야 합니다. BCA 가 제공하는 7개의 영역에서 단순히 아는 것이 아닌, 할 수 있는 것에 더 비중을 두고 학습하는 것이 더욱 중요합니다.
- 협력할 수 있는 활동에 중점을 두어 교우관계를 돈독히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개인 기량의 우수성이 강조되는 스포츠보다 팀웍이 우선시되는 단체 스포츠를 택하는 방법입니다.





**회비 및 회계보고**

- 글쓰기 능력을 기르는 것이 중요합니다. 과학 리서치 분야도 글쓰기로 연구 과정과 결과를 표현해야 하는 만큼, 자칫 소홀히 할 수 있는 이 부분에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일기 쓰기나, 여름방학 BCA 에서 제공하는 Writing Program을 이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또 한가지, 학생들이 대필 또는 표절하여 과제물을 제출하는 일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학부모들도 이 문제에 대해서 인식하시고, 자녀들이 스스로 글을 쓸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바랍니다.
- 결과가 아닌 경험에 더 비중을 두어야 합니다. 경험은 우리가 원하는 것을 성취할 수 없을 때 가질 수 있는 귀한 것이므로, 자녀들의 열정을 잘 지켜주는 것과 이 모든 과정에서 얻어지는 성취, 좌절, 해결점 모색을 존중해 주어야 합니다.
- 리더쉽과 멘토쉽을 계발해야 합니다. 성적을 우선시 하다가 놓칠 수 있는 부분이 타인에 대한 배려입니다. 시간 채우기에 급급한 봉사활동이 아닌 자녀들의 인생에 도움을 주는 봉사활동, 특히 본인들이 속한 지역사회 또는 커뮤니티에 시간과 재능을 기부함으로써 리더쉽을 기를 수 있습니다. 교내에서, 저학년 후배들의 학습을 도와 주는 일로 부터 멘토가 되는 훈련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 자녀의 장점을 발견하여 직업에 대한 탐색을 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12학년의 교과목으로 하나로 이수해야 하는 Senior Experience는, 주 1회 매주 수요일에 본인이 찾거나, 또는 학교를 통해 연결된 기관에서 인턴 실무를 경험하는 프로그램입니다. 현장 경험 및 진로 결정의 중요한 계기로 잘 활용된다고 할수 있습니다.

**회비 납부 안내**

KPPO 연회비는 각 가정당 \$40 이며 버겐아카데미 PPO 회비와는 별도로이며, KPPO가 참여하는 모든 학교 행사 지원을 위한 비용과 신문 발행에 쓰여지게 됩니다. 연회비는 연중 내내 납부하실 수 있으며 전년도 회비도 이월 납부 가능합니다. 회비납부에 관한 문의사항은 회계 (김혜균:201-406-5497) 에게 해 주시고, 회비를 납부하실 분들은 아래 주소로 체크를 보내시면 됩니다.

**Payable to:** BCA KPPO  
**보내실 주소:** Hye Kyun Kim (BCA KPPO)  
 44 Piermont Rd. Norwood, NJ 07648

**2015 - 2016 회비 추가 납부자 명단**

Mary Kang (ACAHA 2017)  
 Rurie Yi (ABF 2018)  
 Dongmin Kim (AMST) 2017

☞ 혹 회비를 내셨는데 명단에 누락되신 분들은 회계에게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 중간 보고		
수입	전년도 이월금 (2014-2015)	\$6,118.09
	회비 (3명)	\$120.00
	<b>수입총액</b>	<b>\$6,238.09</b>
지출	9월 총회 비용 미지급금 (커피및 물품)	\$84.98
	9월 신문비용 (신문 프린트 및)	\$154.56
	2월 정기모임 강사료 / 카드구입, Tip	\$131.29
	회비 refund (중복납부)	\$40.00
	<b>지출총액</b>	<b>\$410.83</b>
잔액		\$5,827.26

대학소개 "Vassar College" by Gloria Park (Class of 2014)



Of course, Vassar has its fair share of downsides with constant political turmoil (stemming from its liberal nature), sometimes stiflingly uneventful neighborhood (located in Poughkeepsie, NY), and no graduate program (due to its small size). Still, there is something to do for everybody at Vassar, whether it be the juggling circus troupe, whistling acapella group, or even quidditch team. Furthermore, with a gorgeous campus in all four seasons, CIA chefs running the dining hall and local restaurants, Steinways in each dorm, and quick access to 18 other colleges' libraries, the merits of attending Vassar are endless.

Founded in 1861, Vassar College was one of the first women's colleges in the United States. As one of the "Seven Sisters" (along with Barnard, Wellesley, and Bryn Mawr), Vassar was associated with one of the Ivy Leagues their male counterparts at the time—Yale University. After declining an offer to merge with Yale, it became independently co-ed in 1969.

While 1969, Vassar continues to enjoy an elite reputation, ranked as #12 on the U.S. News & World Report's list of liberal arts colleges. Consisting of a mere 2,400 students (approximately 600 students per grade), it is highly selective; on average, students receive a 700 in each of the three SAT categories. Vassar is one of the most expensive colleges, costing \$60,000 per year, it is also one of the most generous in providing financial aid, ranked #1 for elite colleges with the highest economic diversity, accepting students of all different socioeconomic statuses in keeping with its need-blind policy.



학부모 참여코너

BCA에서 좋았던 점:  
 아이가 너무 학교를 좋아해서...  
 한국친구가 많아서 갑자기 한국말이  
 확 늘어서...아침 일찍가서 저녁 늦게와서...

안 좋았던 점:  
 생각보다 숙제나 학업스케줄이 바빠서 힘들어  
 하는 걸 지켜보는 거...학교가 멀어서..친구들  
 만나는 것도 종횡무진인 되는 상황..  
 아시안과 한국인 학생이 많다보니 뭔가가  
 편향되거나 부족한 듯한 묘한 기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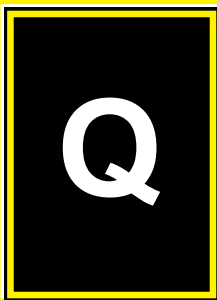
긴 통학 거리에 피곤한 모습, 잠을 줄여가며  
 공부하고, 매일 매일 많은 과제가 아이를 누  
 림을 보며, 또 성적이 시원하게 올라가지 않  
 는 것을 보며, 제 마음이 후회도 되고 힘든 적  
 도 많았습니다.

그러나 우리 아이가 버겐 아카데미에 와서  
 여러가지 다양하고 수준이 높은 새로운  
 기회를 보다 훨씬 많이 가질 수 있어 아이에  
 게 최고의 선택임을 자부 합니다. 그리고 각  
 타운의 우수한 학생들을 친구로 선배로 만날  
 수 있어 고교 생활이 더 재밌고 풍성하며 또  
 서로에게 평생 자산이 되지 않을까 기대해 보  
 니다

저 또한 KPPO를 통해 너무나 좋으신 어머님  
 들을 만나게 되어 많이 배우고 나누고 격려  
 받고... 맛있고 재밌는 시간들을 가지게 되어  
 참으로 감사한 마음입니다.

복적복적 맨해튼의 한 가운데를 거닐며 "우리  
 아들은 나중에 커서 맨해튼에 살면 너무 재밌겠다  
 ~ " 하면 "나 맨하탄 싫어, 뉴저지가 좋아, 나 뉴저  
 지에서 살거야" 하며 바로 건너 도시도 두려워하는  
 촌스러운 시골 소년이 자기 평생 살던 작은 타운의  
 작은 학교를 떠나 BCA 라는 더 넓은 세상으로  
 나아갔습니다.

당연히 힘들겠죠. 문화적 충격도 있겠죠. 성적 받기  
 도 힘듭니다. 적당히 해서는 통하지 않습니다. 맘껏  
 자던 잠도 이제는 안녕 입니다. 그러나 아이는 그  
 안에서 자기의 자리를 찾아가며 새로운 친구들과  
 환경이 주는 고달픔 보다는 행복과 기대에 찬 모습  
 입니다. 성적과 많은 과제, 공부로 힘든 것을 뛰어  
 넘어 아이를 행복하게 만드는 매력 그 무엇이 BCA  
 에 있구나를 느끼는 시간들 이었습니다.



**BCA에서  
 힘든 점!  
 좋은 점?**

Getting research opportunities!  
 School ends late compared to  
 other high schools...

BCA 와서 힘들었던 점:  
 한 가지 APP 이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할 줄이야..  
 PowerSchool!?!#@...

BCA 와서 좋았던 점?  
 아이의 새로운 모습!  
 책상에 앉아 공부하는  
 모습을 자주 볼 수 있어요!!



신문팀에서 알립니다.  
 신문에 관한 피드백, 제안 또는 기사에 관한 궁금증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해 주십시오. Ssk.kcs.phrc@gmail.com

학부모 참여코너

좋은 점: 관심있는 일렉티브 과목을 선택해서 들을 수 있는 기회가 많고 좋은 선생님들을 멘토로 삼아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어서요.

나쁜 점: 좋아서 선택한 아카데미에서 적성에 맞지 않는다는 것을 뒤늦게 알게되어도 바꿀 수 없다는 것...

로컬 학교보다 더 다양한 문화의 친구들을 만난 것을 즐거워해요! 아직까지 학교 생활에 대한 불평 또는 힘들다고 심각하게 말하지는 않아요. "공부 스트레스 넌 없니?" 라고 물으면, "엄마는 학교 안 다녀봤어??" 라고 대꾸하네요. 당연하겠지요... 하지만, 자기가 겪어야 할 도전이라고 여기는 것 같아요.

아이가 BCA에서 힘들었던 점:

학교 친구들간에 좋은 성적을 받기 위해 경쟁하는 모습을 보게 될 때. 특히 친한 친구인 것 같았는데, 어떤 때는 상대 친구가 경쟁의식을 느끼는 것 같을 때 학교가 넘 힘들었다네요

아이가 BCA에서 좋은 점:

그런 경쟁 분위기속에서도 좋은 친구를 만났고 Mr. Respass 와 같은 좋은 선생님을 만나서 참 좋다고 합니다!



BCA 에 합격해 좋아하던 때가 엇그제인데 벌써 두학기가 끝났네요.

첫학기 얼마 안가서 Academy 를 불문하고 제법 친구도 많이 만들고 덕분에 학교 생활이 더 없이 행복하다고 하더니 언제부터인가 하나 둘 주변 친구들이 자기 타운 학교로 돌아간다고 투덜거렸습니다. 그러더니 두번째 학기 마지막날인 월요일과 화요일 연속으로 두명의 친구가 자기타운 학교로 돌아갔으며 속상해 하길래 이유를 물었더니 친한 친구 하나는 학점이 너무 기대 이하로 받아서라며...ㅠㅠ. 또 한 친구는 옛친구들이 거의 다니는 타운고에서 함께 공부하고 싶다며 돌아갔단네요.

모두가 열공하고 있는 가운데 그런 말을 하는 아이한테 "니 학점은 안전하냐고? 잘 하고 있냐고?" 물었어요. 그 사이 성적이 나올 때마다 설마설마 "그래도 학기 마무리는 A minus 라도 설마 하겠지..." 믿었지만 생각처럼 쉽지 않았어요. 비록 장대비(B)는 쏟아지지 않았지만 이슬비는 쉬지않고 눈에 보일듯말듯 내리고 있네요. 차라리 지나가는 소나기라면 잠시 처마밑에 서서 기다리면 옷자락 적시지 않고 지나갈텐데요... 아이한테 말해줍니다 "꼭 장대비를 맞아야 감기 드는게 아니라고, 눈에 보이지 않게 내리는 이슬비도 많이 오래 맞으면 독감이 온다고요, 빨리 햇빛 쨍쨍 내리는 곳에서 옷을 말리라고요" 아이는 알았다며 "마지막 학기는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해보겠노라며~" 엄마인 저에게 거꾸로 힘을 줍니다.

제 아이는 에너지를 충전하고 열린 안개로 뒤덮인 마지막 학기 속으로 걸어들어갑니다...부디 학기 터널 끝에는 눈부신 해가 떠 있기를 바라며 뒷바라지 잘해주고 잘 해내기를 응원하는 수 밖에요.

우리 아이들 정말 애쓰고 있네요.. 하나님 감사합니다!!!